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과 대학생 자녀의 자기존중감에 따른 외모만족도

한미숙*, 이윤정*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

The Appearance Satisfaction according to Parents' Appearance-related Parenting Style and Undergraduate Children's Self-esteem

Han, Mi-Sook * Lee, Yoon-J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s' appearance-related parenting styles on children's adolescence and self-esteem by examining university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The results generated 3 different appearance-related parenting styles for fathers: indifference type (45.5%), conservative regulation type (32.0%) and appearance-pursuing type (22.5%), and three for mothers: opinion-respecting type (39.5%), conservative regulation type (32.6%) and appearance-pursuing type (27.9%). In addition, when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were compared based on children's self-esteem and their appearance satisfaction, male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was affected more by their self-esteem than by parents' parenting styles. In comparison, female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parents' parenting styles. Specifically,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ody satisfaction were high when the mother respected the children's opinions, and body satisfaction was rather low when the father was of appearance-pursuing. This result shows that parents need to respect their children's opinions on their appearance and guide them to find their own individuality in order to enhance the children'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Key word: 양육유형(Parenting style), 무관심형(indifference type), 의견존중형(opinion-respecting type), 보수적 규제형(conservative regulation type), 외모추구형(appearance-pursuing type), 외모만족도(appearance satisfaction), 자기존중감(self-esteem)

I. 서론

청소년기는 많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청소년은 자신의 외모 특히 체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변화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장선철, 송미현, 2004). 또한 사춘기 동안 자신의 신체발달에 대해 종종 남의 이목을 의식하고 부끄러워하며, 날씬한 것을 선호하는 사회인식에 상처받기 쉽고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갖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정승교 등, 1997).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되는 신체이미지는 자기존중감과 밀접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외모 또는 신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그들의 자아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이금룡, 1998). 그러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자기이미지의 정립을 위해서는 외모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과 같이 외모 지상주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신체이미지를 갖고,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 또는 외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한 가지로서 부모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한 인간의 성격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 인지 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부모가 얼마나 권위적인지 혹은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지가 자녀의 자기존중감, 성숙도, 인지적 발달, 책임감, 독립성 발달, 목적지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Baumrind, 1976, Gonzalez & Wolters, 2006에서 재인용; Chan & Chan, 2005; Ginsburg & Bronstein, 1993; Gonzalez & Wolters, 2006). 특히 외모의 경우에는 유전적 영향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체형을 물려받는 경향이 높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가 비만인 경우 자녀도 비만인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hitaker, 2004). 이런 경우에 자녀는 부모로부터 비만체형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혐오하는 태도까지도 물려받을 수 있다. 즉, 부모가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경우, 딸들도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Paxton et al., 1991).

이는 부모들이 직접적으로 자녀들에게 다이어트를 권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다이어트 하는 부모들을 보고 자란 경우 그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어머니의 딸의 신체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ee, Ulrich, & Connell, 2006). 따라서 부모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외모관련 양육유형을 결정할 것이며, 이는 자녀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과 자녀의 자기존중감이 따른 외모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청소년기 시절의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방식과 대학생 자녀들의 자기존중감이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 자녀들의 외모관리 지도를 돕기 위한 학부모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유형

부모의 양육유형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이는 행동 방식의 유형이나 형태를 의미한다(Baumrind, 1976, Gonzalez & Wolters, 2006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차원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차원으로 분류 된다(Jang et al., 1997, 김용석, 박명숙, 2000에서 재인용). 여기서 정서적 유대관계라고 함은 부모와 자녀 간에 존재하는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감정의 상호교류를 의미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유대감이 강한 경우 자녀는 심리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크며, 부모가 간접적인 사회통제의 역할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김용석, 박명숙, 2000).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은 자녀에게 일관성 있는 훈육을 적용하고 자녀의 행동에 주의

를 기울이고 문제가 되는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의 비행 예방하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함으로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동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약물 복용을 시작하는 연령이 빠르다든가(Chilcoat, 1996),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Wassweman et al., 1996) 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측면은 일반적인 양육태도가 아닌, 외모와 관련된 양육태도 또는 행동유형이다. 이는 일반적 양육태도와 연관을 가질 것이나, 정서적 유대관계 차원보다는 감독의 차원이 더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따라서 부모들을 유형화하고 바람직한 유형의 양육태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간섭형, 과보호형, 방임형, 엄격형의 네 가지를 들었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 지배적, 과보호적, 복종적이 아닌 중간을 취하는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박영애 등(2003)은 부모의 양육유형을 민주적 부모, 독재적 부모, 허용적 부모, 방임적 부모로 나누었다. 그들은 민주적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로 자녀를 통제하는 데 비하여, 독재적 유형의 부모는 완고하고 자녀를 강압적으로 통제한다고 하였다. 허용적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자녀를 거의 통제하지 않는 유형이며, 방임적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자녀를 거의 통제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하였다. 이들 유형 중 자녀의 자기존중감을 높여주는 이상적인 부모의 유형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유형의 부모라고 하였다. 강제희(2006)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존중감,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취한다고 지각할수록 그들의 신체 외모적 자아와 성격적 자아로서의 자기존중감이 높아지고 합리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정신병적인 증상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나, 부모들이

자녀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신체적 자아를 포함한 자기존중감 형성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Harter, 1987; 박영애, 2003; 강제희, 2006).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련하여 자녀의 성별,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Noller(1980)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차이가 있고 자녀의 행동, 태도, 성격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상모(2001)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남녀 중 고등학생 모두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성전(2004)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 중학생은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남학생은 아버지의 애정을 보다 더 높이 지각하며 여학생은 어머니의 애정을 더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애정적 통제적이며, 아버지는 냉담적, 자율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유형이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인 특성들과 더 많이 관련이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Gonzalez & Wolters, 2006; Kagan, 1971). 따라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별, 또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기존중감

‘외모만족도’라는 개념은 신체 여러 부분의 생김새와 신체 기능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신체만족도’에 비하여 자신의 전체적인 신체 및 신체 장식 상태로 표현되는 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자기존중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정가가 내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존중감의 정도를 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타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한 자신의 수용과 존경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치로운 한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다(Rosenberg, 1979).

Harter(1986)는 자기존중감에 대하여 다차원적 접근을 취하여 총체적 자아 가치와 구체적 하위영역들 간의 구별을 강조하였다. 즉,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하위요인인 각 영역에서의 자아지각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그가 개발한 척도에서는 자기존중감을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신체적 외모, 품행 등 다섯 가지 하위영역에서의 자아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파악했다.

2002년 조사된 보건복지부의 자료(보건복지부, 2002)에 의하면 한국 여자 청소년들 중 71.6%가 마른 체형을 선호하였으며, 이중 날씬해져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학업 및 음식물 섭취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가 22%나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므로 사회, 문화적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 신체적 열등감은 일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 청소년들의 자기존중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서윤경(2003)은 청소년이 인지하는 외모만족도가 자기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모만족도가 높았으며 외모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자기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만족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준선(2006)은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외모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에게 중요한 가족 및 또래 친구들과 교사를 통해 자신이 사랑을 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하고 있어 자신감과 자기조절능력이 높고 어려운 과제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선철, 송미현(2004) 또한 고등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자기존중감이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본 결과, 외모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만족도는 고등학생의 자기존중감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위영역으로 얼굴만족도가 자기존중감을, 얼굴만족도와 전신만족도가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미리(2005)는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체적 매력과 자기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신체적 매력에 대한 타인의 우호적 반응에 의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실제보다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 성향이 높은 자기존중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소년기의 외모만족도는 자기존중감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등의 중요한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은 청소년기 자녀들의 자기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의 외모만족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외모관련 양육방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 예상되는 바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과 자신의 자기존중감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하는 청소년기 시절의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을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2) 분류된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과 대학생 자녀의 자기존중감이 남녀 대학생 각각의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2〉 어머니의 외모관련 양육태도 요인분석

요인명	문항	부하량
의견존중요인 설명변량=18.9% 고유치=2.26 alpha=.68	나의 어머니는 나의 옷 입는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743
	나의 어머니는 나의 외모에 대한 행동(의복 스타일, 머리 스타일)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739
	나의 어머니는 나의 외모를 좋아하신다.	.671
	나의 외모관련 태도는 나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606
외모관리요인 설명변량=18.5% 고유치=2.22 alpha=.68	나의 어머니는 본인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	.534
	나의 어머니는 내가 날씬하기를 바라신다.	.833
	나의 어머니는 내가 살찌는 것을 걱정하신다.	.817
	나의 어머니는 성형에 대해 관대하신다.	.593
보수적규제요인 설명변량=18.3% 고유치=2.20 alpha=.67	중고등학교 시절 나의 어머니는 나의 머리 스타일에 대해 규제를 하신 적이 있다.	.818
	중고등학교 시절 나의 어머니는 나의 옷 입는 스타일에 대해 규제를 하신 적이 있다.	.805
	나의 어머니는 나의 외모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하신다.	.652
	나의 어머니는 내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532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다. 응답자의 전공은 다양하였다.

서울시내의 남녀공학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2006년 6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대부분 수업시간을 통하여 담당강사의 양해를 받아 실시되었으며, 가능한 다양한 학생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양과목 수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연령 평균은 20.98세였으며, 남학생이 42.8%, 여학생이 57.2%이었

3. 측정도구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된 변수들은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자기존중감, 인구통계적 특성 등이었다.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표 1〉 아버지의 외모관련 양육태도 요인분석

요인명	문항	부하량
보수적 규제요인 설명변량=23.5% 고유치=2.59 alpha=.73	중고등학교 시절 나의 아버지는 나의 머리 스타일에 대해 규제를 하신 적이 있다.	.799
	중고등학교 시절 나의 아버지는 나의 옷 입는 스타일에 대해 규제를 하신 적이 있다.	.788
	나의 아버지는 나의 외모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하신다.	.703
	나의 아버지는 내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541
외모관리요인 설명변량=19.6% 고유치=2.16 alpha=.74	나의 아버지는 나의 외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527
	나의 아버지는 내가 날씬하기를 바라신다.	.882
	나의 아버지는 내가 살찌는 것을 걱정하신다.	.879
	나의 아버지는 나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놀리신다.	.593
의견존중요인 설명변량=15.1% 고유치=1.67 alpha=.63	나의 아버지는 나의 외모를 좋아하신다.	.759
	나의 아버지는 나의 옷 입는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750
	나의 아버지는 나의 외모에 대한 행동(의복 스타일, 머리 스타일)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672

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서윤경, 2003; 전준선, 2006)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16개의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므로 총 32개 문항이 설문에 포함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은 대학생이었으나, 실제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중고등학교 시기의 외모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었으므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외모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연구자가 작성한 신체 각 부분과 전체적인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자기존중감은 Rosenberg의 Self Esteem Scale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외에 연구대상자들의 성별과 연령 등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으로 분석되었고,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 유형

부모들의 외모관련 양육태도 유형을 나누기 위해 먼저

아버지의 양육태도문항 16문항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문항 16문항을 각각 이용하여 별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3요인이 추출되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경우 추출된 3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8.3%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보수적 규제요인으로 ‘머리 스타일에 대한 규제’, ‘옷 입는 스타일에 대한 규제’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요인 2는 외모관리 요인으로 ‘날씬하기를 바란다’, ‘살찌는 것을 걱정 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요인은 아버지가 사회문화적인 신체에 대한 이상을 수용하여 자녀가 사회문화적 기준을 따르도록 통제하는 경향이다. 요인 3은 의견존중 요인으로 ‘나의 외모를 좋아하신다’, ‘나의 옷 입는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자녀들에게 자율을 허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경우에 대해서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3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변량의 55.7%를 설명하였다. 이들 3요인은 아버지의 경우와 유사하나 요인의 고유치 크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요인 1이 의견존중 요인, 요인 2는 외모관리 요인, 요인 3은 보수적 규제 요인이었다. 아버지의 경우 보수적 규제요인의 설명변량이 23.5%인 데 비하여 의견존중요인은 15.1%이어서, 요인들의 설명변량의 크기에 차이가 있었던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세 요인들의 설명변량에 차이가 거의 없고 모두 18%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요인의 순서는 달랐으나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은 한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아버지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였다.

이상에서 추출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요인을 이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군집분석을 실

〈표 3〉 아버지의 외모관련 양육태도 군집의 특성

요인	아버지 유형	외모추구형 (n=52)	무관심형 (n=105)	보수적규제형 (n=74)	F (d.f)
보수적 규제 요인		-.34 B	-.63 A	1.13 C	185.78*** (2, 228)
외모관리 요인		1.20 C	-.54 A	-.07 B	97.21*** (2, 228)
의견존중 요인		.61 B	-.16 A	-.20 A	13.80*** (2, 228)

주. A<B<C :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 Test, *p<.05, **p<.01, ***p<.001

시한 결과 아버지 양육유형은 모든 요인에 대해서 낮은 값을 보인 무관심형(n=105, 45.5%), 보수적 규제요인에 대해 높은 값을 보인 보수적 규제형(n=74, 32.0%), 외모관리 요인에 대해 높은 값을 보인 외모추구형(n=52, 22.5%)으로 나뉘었다(표 3).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집단은 무관심형이었다. 아버지들이 자녀의 외모에 대하여 대체로 무관심하다는 일반적 인식을 입증해 보이는 결과였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의견존중형이 추출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무관심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여기서 보수적 규제형과 외모추구형의 차이는 보수적 규제형의 경우 보수적인 시각으로 노출이나 화려한 의복 등을 규제하는 경우이고, 외모추구형은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거나 외모를 가꾸는 것을 권장하는 등, 사회문화적 인식에 부응하여 외모에 관심을 갖도록 권하는 경우라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어머니 양육유형의 경우(표 4), 의견존중요인에 높은 값을 보인 의견존중형(39.5%), 보수적 규제요인에 대해 높은 값을 보인 보수적 규제형(32.6%), 외모관리 요인에 대해 높은 값을 보인 외모추구형(27.9%) 등 각각 3집단이 추출되었다.

어머니의 유형 중 가장 큰 집단은 의견존중형으로 40% 가량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무관심형이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들은 자녀의 외모에 보수적인 입장에서건 외모관리의 입장에서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추구형(n=65)보다는 보수적 규제형(n=72)이 수적으로 약간 더 많았다.

2.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과 대학생 자녀의 자기 존중감에 따른 외모만족도

부모 양육유형과 대학생 자녀의 자기존중감에 따른 외모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원공분산분석(MANCOVA)를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인 외모만족도는 신체 3부위(상반신, 얼굴/전반적 외모, 하반신)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아버지의 양육유형과 어머니 양육유형이 투입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로서 자기존중감(긍정적자아, 부정적자아, 자신감)의 3개 하위요인이 공변수로 고려되었다. 종속변수인 외모만족도는 신체 각 부분과 전체적인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14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출된 상반신, 얼굴/전반적 외모, 하반신의 3요인이었으며, 이들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82, 0.71, 0.86이었다. 또한 공변수로 고려된 자기존중감은 Rosenberg의 Self Esteem Scale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추출된 긍정적 자아, 부정적 자아, 자신감의 3요인이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0.84, 0.85, 0.74이었다.

그 결과(표 5), 남학생에게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데 비하여 공변수였던 자기존중감의 하위요인들이 외모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공분산분석 결과와 변수들의 추정 부분상관계수를 검토한 결과, 긍정적 자아는 하반신 만족도 요인에 정적 상관을 보였고(F=7.53, d.f.=1, p<.01, β=.22), 부정적 자아는 전반적 외모/얼굴 만족도 요인에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F=9.17, d.f.=1, p<.01, β=-.32). 이는 남학생들은 부모의 영향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 의해 신체부

〈표 4〉 어머니의 외모관련 양육태도 군집의 특성

요인	어머니 유형	외모추구형 (n=65)	보수적규제형 (n=72)	의견존중형 (n=96)	F (d.f.)
의견존중 요인		.15	-.64	.38	27.15*** (2, 230)
		B	A	B	
외모추구 요인		1.12	-.04	-.73	152.59*** (2, 230)
		C	B	A	
보수적 규제 요인		-.43	.95	-.42	77.52*** (2, 230)
		A	B	A	

주. A<B<C :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 Test,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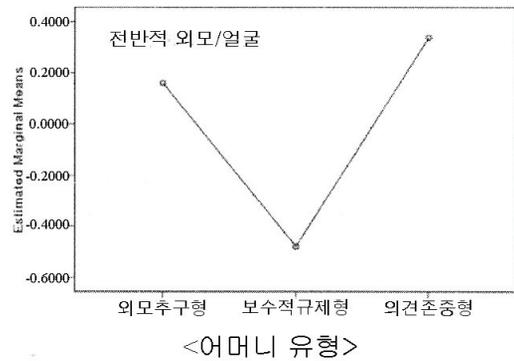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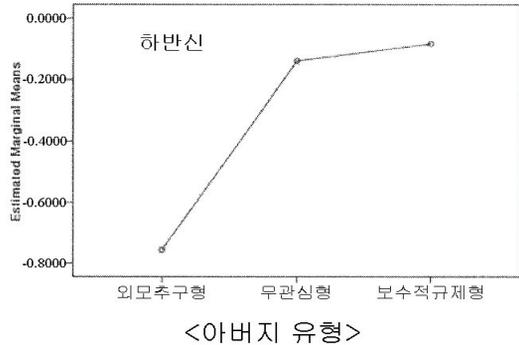
분에 대한 만족도가 결정됨을 보여주며, 특히 하반신에 대한 만족이 자신감과 관련되는 반면 전반적 외모 또는 얼굴에 대한 불만이 콤플렉스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신체부분 만족도에 대한 다원공분산분석

공변수/집단요인	남학생 모형	여학생 모형
긍정적 자아 요인	3.81*	.81
부정적 자아 요인	5.77**	1.39
자신감 요인	2.25	4.26**
아버지 양육유형	1.45	2.25*
어머니 양육유형	1.27	2.65*

주. *p<.05, **p<.01, ***p<.001

이에 비하여 여학생들은 부모의 양육유형에 따라 외모 만족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그림 1), 어머니의 양육유형은 전반적 외모/얼굴에 대한 만족 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F=9.04, d.f.=2, p<.01), 아버지의 양육유형은 하반신에 대한 만족에서 차이가 있었다(F=7.30, d.f.=2, p<.05).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로 세 집단의 평균값에 대한 bonferroni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보수적 규제형(m=-.46)인 집단이 어머니가 외모추구형(m=.21, p<.01)인 집단과 의견존중형(m=.32, p<.01)인 집단보다 외모/얼굴에 대한 만족이 낮았으며, 아버지가 무관심형인 집단(m=-.07)이 외모추구형(m=-.75, p<.05)인 집단보다 외모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외모를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여학생들은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버지들의 경우 딸의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신체이미지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유형은 의견존중형으로 보인다. 공변수인 자기존중감 중 자신감은 상반신(F=7.53, d.f.=1, p<.01, β=.22)과 얼굴/외모에 대한 만족도(F=7.53, d.f.=1, p<.01, β=.22)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림 1]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과 여학생의 외모만족도 다원공분산 분석 결과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과 대학생 자녀의 자기존중감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태도 유형을 나누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양육태도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3요인이 추출되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보수적 규제요인, 외모관리요인, 의견존중요인이었으며 또한 어머니의 경우에 의견존중요인, 외모관리요인, 보수적 규제 요인이었다.

둘째 : 추출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요인을 이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군집분석을 실시

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에는 무관심형(45.5%), 보수적 규제형(32.0%), 외모추구형(22.5%)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반해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견존중형(39.5%), 보수적 규제형(32.6%), 외모추구형(27.9%) 등 각각 3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 부모의 양육유형과 대학생 자녀의 자기존중감에 따른 외모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원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들은 부모의 영향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 의해 신체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결정됨을 보여주며, 특히 하반신에 대한 만족이 자신감과 관련되는 반면 전반적 외모 또는 얼굴에 대한 불만이 콤플렉스의 원인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하여 여학생들은 부모의 양육유형에 따른 외모만족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양육유형은 전반적 외모/얼굴에 대한 만족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아버지의 양육유형은 하반신에 대한 만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는 의견존중형이 많았던 반면 아버지의 경우 무관심형이 많았고 의견존중형은 적었다. 또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어머니를 가진 여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와 신체만족도가 높았으며, 아버지가 외모추구형인 여학생의 경우 오히려 자녀의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자녀들은 의견존중형을 가장 이상적인 양육유형으로 인식하며 의견존중형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부정적으로 보고 규제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외모를 관리하기 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개성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자녀의 외모만족과 자기존중감 고양에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지나친 관심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특히 남학생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태도보다는 자녀의 자기존중감이 그들의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외모자체에 영향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기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으로 자기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도 높았으므로, 자녀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등을 통해 자극을 주어 외모 지도를 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하여 자기존중감을 갖게끔 돕는 것이 자녀가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재희 (200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석, 박명숙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신민섭, 김향은 (2003).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키워주는 부모** 양지사.

보건복지부 (2002).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건강수준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서운경 (200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 평가와 부정적 자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장선철, 송미현 (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지**, 11(3), 115-133.

전준선 (2006).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상모 (2001). **부모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승교, 박종성 (1997). 여중생의 체중조절 실태, 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2), 171-184.

정지영(2003).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에 따른 신체관리행동 및 의복추구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169-208.

Chan, K., & Chan, S. (2005).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goal orientations: A study of teacher education students in Hong Kong. *Research in Education*, 74(November), 9-21.

Curtis, A. (1991). Perceived similarity of mothers and their early adolescent daughters and relationship to behavior.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3), 381-397.
- Ginsburg, G., & Bronstein, P. (1993). Family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1461-1471.
- Gonzalez, A., & Wolters, C. A. (2006).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mathematic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21(2), 203-217.
- Harter, S., & Nowakowski, M. (1987). *Manual for the Dimension of Depression Profi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University of Denver.
- Kagan, J. (1971). *Personality Development*.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Lee, S., Ulrich, P. V., & Connell, L. J. (2006). Body image perceptions of adolescent daughters and their mothers in U. S. **한국의류학회지**, 30(12), 1714-1722.
- Noller, P. (1980). Cross-gender effect in the two-child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2), 157-160.
- Paxton, S. J., Wertheim, E. H., Gibbons, K., Szmukler, G. I., Hillier, L., & Petrovich, J. L. (1991). Body image satisfaction, dieting beliefs and weight-loss behaviors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361-379.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Symonds, P. M. (1949).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Appleton-century craft.
- Thelen, M. H., Cormier, J. F. (1995). Desire to be thinner and weight control amo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Behavior Therapy*, 26, 85-99.
- Usmiani, S., & Daniluk, J. (1997).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daughters: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gender role identity, and body im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1), 45-62.
- Whitaker, R. (2004). Predicting preschooler obesity at birth: The role of maternal obesity in early pregnancy. *Pediatrics*, 114(1), 29-36.

<국문요약>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과 자신의 자기존중감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외모관련 양육유형은 무관심형(45.5%), 보수적 규제형(32.0%), 외모추구형(22.5%)으로 분류되었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견존중형(39.5%), 보수적 규제형(32.6%), 외모추구형(27.9%)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유형과 대학생 자녀의 자기존중감에 따른 외모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태도보다는 자녀의 자기존중감이 그들의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하여 여학생들은 부모의 양육유형에 따른 외모만족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어머니를 가진 여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와 신체만족도가 높았으며, 아버지가 외모추구형인 여학생의 경우 오히려 자녀의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자녀들은 의견존중형을 가장 이상적인 양육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자기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도 높았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의 외모 관련 양육태도로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개성을 찾도록 지도하는 것이 자녀의 외모만족과 자기존중감 고양에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11월 9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22일